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9. 15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9/8~9/12)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한 미 비농업 고용지표에 연준 9월 금리인하가 기정사실화되었음에도 수급상 매수 우위에 소폭 하락 출발. 이어 연준 빅컷 기대감이 재차 고조된 가운데 프랑스 정부 불신임 결정으로 불확실성 완화에 따라 달러 약세 압력 나타나면서 추가 하락
- 중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수세 이어졌음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환전 수요 지속된 영향으로 1,380원대 중반에서 하단 지지됨
- 후반, 미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경계심리 반영한 달러 강세 흐름 속 반등. 이어 주 후반, 미 CPI가 전망치를 상회했으나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 등 고용 냉각 우려 속 연준 인하 기대 유지되면서 재차 하락 마감

달러/원 전망

- 최근 연이은 미 고용지표 부진에 금주 예정된 9월 FOMC에서 금리인하 예상됨에 따라 환율 하락 흐름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다만, 시장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과 미 인플레이션 우려 상존 속 추가 인하 기대 제한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또한, 수급상 수입업체 결제수요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환전 수요 등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점도 하방 경직성에 영향 미칠 요인으로 판단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88.5	1,393.7	1,384.5	1,388.2	-0.3

예상거래범위

1,380원 ~ 1,395원

유로·엔화 동향 (9/8~9/12)



유로화 동향

- 주초, 프랑스 의회 바이루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로 정부 붕괴되었으나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는 인식 속에 유로화는 반등 출발. 이어 프랑스 긴축 예산안 철회 요구 시위 등 정국 불안 지속되면서 약세로 재차 전환
- 중반, 미 CPI 경계감에 달려 강세 나타난 가운데 폴란드의 러시아 드론 격추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된 측면 반영하며 추가 약세
- 후반, ECB의 금리동결 결정 이후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를 제한하는 라가르드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 강세로 전환. 이어 주 후반, 피치의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 결정에도 스페인, 포르투갈 등급 상향 조정 소식에 추가 약세 제한되며 1.17달러대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717	1.1780	1.1661	1.1735	+0.0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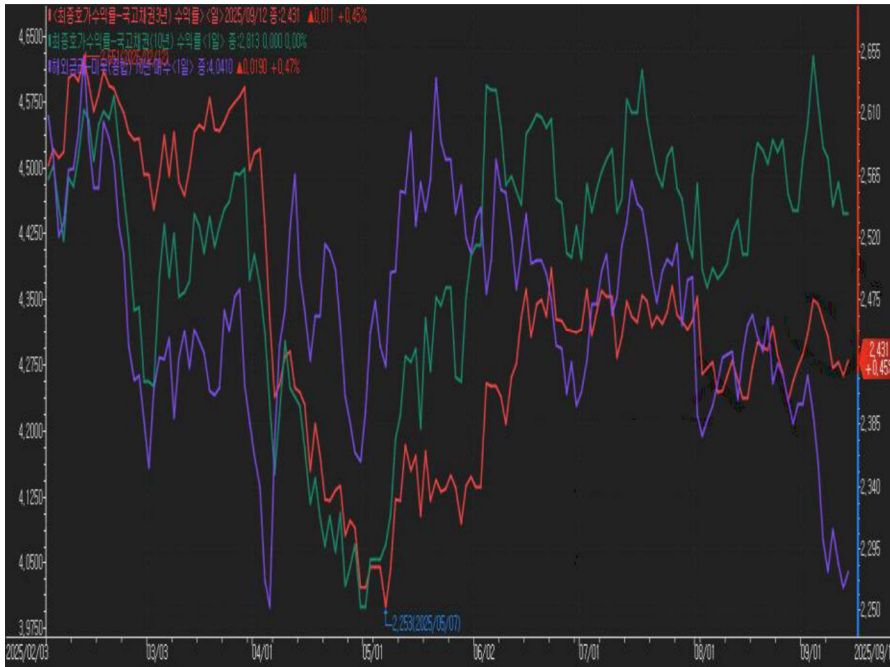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이시바 총리의 사임 발표에 정치적 불확실성 부각되었으나 일본 경상수지 6개월 연속 흑자 소식에 약세폭 되돌리며 출발. 이어 미 비농업 고용 충격 여파 속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과 그에 따른 미-일 금리차 축소 전망에 강세
- 중반, 일본 정국 불안 지속되는 가운데 월말 일본 수입기업들의 달러 매수세 유입된 영향으로 재차 약세
- 후반, 예상을 웃돈 미 CPI에도 미 고용 관련 지표 부진에 연준 금리인하 전망을 확신하는 분위기 이어지면서 강세로 전환. 이어 주 후반, 미국과 일본의 환율정책 관련 공동성명 발표 후 개입 가능성 낮다는 인식 속에 약세 압력 받으며 147엔대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7.4	148.6	146.3	147.7	+0.3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9/8~9/12)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2.2만명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함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 반영으로 뉴욕 채권시장이 강세 보인 흐름에 연동 속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이어, 미 국채 금리가 고용 냉각에 초점 맞춰 추가 하락세 이어간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확대 등이 맞물리며 금리 하락세 이어진 국면
- 중반 들어, 미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경계감 강화 등으로 박스권 움직임 시현
- 후반 들어, 국내 9월 중 수출이 1년 전보다 4% 가까이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이 본격 관세 영향으로 8.2% 감소했다는 소식과 미국 PPI가 전월 대비 0.1% 감소하며 시장 예상보다 낮아진 가운데 금리인하 기대 영향 등으로 금리 하락 전환 후, 주 후반, 8월 CPI가 시장 예상보다 소폭 상회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경계감 반영 등으로 소폭 상승 전환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미국 8월 비농업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하회함에 따라 뉴욕 3대 지수가 약세 마감. 이는 고용 악화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보다 경기침체 자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 하지만, 코스피는 상기 영향에도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대형주 중심 순매수 강화로 상승 출발. 이어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 호재와 이들 종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수 등으로 상승 지속. 중반 들어, 연준에 대한 금리인하 기대감 지속에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입장 발표 등에 따른 시장 기대 등이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 미치면서 코스피 3,310대의 사상 최고치 경신. 후반 들어, 코스피는 종가 기준 최고치 재차 경신한 가운데 대통령 중시 부양 의지 확인에도 기준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함에 따른 증권업종 차익실현 등으로 상승폭 제한. 주 후반, 8월 미 CPI 상승에도 9월 인하 기대의 기정사실화 등으로 외국인 매수세 강화 속 상승 마감